

건강 밥상 책임질 보리 신제품 분양

농진청, 농진원 기관 신청 11~29일 · 식량원 27~9월 3일 신청받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보리 13품종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국립식량과학원을 통해 보급한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오는 11월부터 29일까지 '썩이랑', '호강' 등 7개 품종 종자 신청을 '종자광장' 누리집(<https://www.seedplaza.or.kr>) 및 유선(063-919-1614~6)을 통해 받는다. 국립식량과학원은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혜맑은', '혜누리' 등 6개 품종 종자 신청을 누리집(<http://www.nics.go.kr>)에서 받는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보급종 가격은 20킬로그램당 쌀보리·맥주보리는 3만 6,000원, 쌀보리는 4만 1,000원이다. 단,

식물특허로 등록된 '베타헬스'와 '혜맑은' 품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기술이전을 받은 기관(또는 개인)에만 분양된다. 쌀보리 '썩이랑'은 추위에 견디는 특성이 강하고 병 저항성이 강해 수확량이 많다. 폴리페놀 함량이 많고 효소 역가가 높으며 사육 기능성도 우수하다. '썩누리'는 흰가루병 저항성이 있으며 효소 역가가 높다. 2023년 개발된 '베타헬스'와 '혜누리'는 각각 당도 및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는 베타글루칸과 알칼리성 간 질환 보호 효과가 있는 사포닌 함량이 높다. '혜

은'은 갈변 물질인 프로안토시아닌 함량이 적고 효소 역가가 높아 식해를 만들면 색이 맑고 당도도 높다. '혜미'는 쓰러짐에 강하고 다수성이며, 효소 역가가 높아서 엿기름용으로 쓰인다. 쌀보리 '누리찰'은 보리누른모자이크바이러스(보리호위축병)에 강하고, 쓰러짐에 강해 생산량이 많다. '호강'은 쓰러짐에 강하며 가루 색이 기존 품종보다 더 밝은 흰빛을 띤다. 벼수정찰은 갈변현상이 적어 밥을 지어도 색깔이 변하지 않으며, 빵을 만들면 찰지고 색도 밝다. 맥주보리 '강맥', '호단'은 쓰러짐과

병에 강해 수확량이 많고, 맥주 제조 특성도 우수하다. '강맥'은 추위에 강하고 잘 익은 정상 보리 비율(정립률)이 높다. '새호품'은 기존 품종의 단점이었던 쓰러짐과 흰가루병에 대한 저항성이 향상된 신제품이다. 수량이 약 11% 증가했으며 맥아 품질은 그대로 유지해 산업적 활용도가 높다. 농촌진흥청 맥류작물과 이정희 과장은 "최근 보리 산업은 재배감소 및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가격 폭등과 원료곡 수입 확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며, "재배 안정성이 강화되고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반영한 우수한 신제품을 보급해 국산 보리 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염소탕, 알고 먹으면 복날 보양식'

농진청, '단백질·철분·비타민E 등 풍부해 기력 회복에 도움'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복달임 음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염소 고기의 영양적 가치와 함께 가정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염소탕' 조리법을 소개했다. 국립축산검역본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염소 고기는 6~8월에 전체 생산량의 약 30%(2023년 기준)가 집중될 만큼 여름철에 많이 생산된다. 이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염소 고기에 관심이 많고 소비 또한 적지 않다는 방증이다. 우리나라 전통 의학서 '동의보감(東醫寶鑑)'에는 염소 고기가 체력 보강, 피로 해소, 소화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기록이 있다. 실제로 염소 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적어 고단백·저지방 식단을 선호하는 현대인에게 적합하다. 또한 칼슘과 철분이 많아 뼈 건강과 혈액 생성에 도움이 되고, 몸에 활력을 주는 비타민 E(E)와 B(B)가 들어 있어 여름철 기력 회복 음식으로 제격이다. 염소 고기는 쇠고기처럼 등심, 목심 등 10개 부위로 나뉘며, 붉은 색을 띤다. 고기 조직이 부드럽고 질기지 않아 탕, 수육, 불고기 등으로 다양하게 조리할 수 있고, 누나 부단 없이 즐기기에 좋다.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염소탕' 조리법을 소개했다. 염소 고기는 조리 전 잡내를 줄이기 위해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된장, 맛술, 월계수 잎을 넣어 끓인다. 고기가 익으면 손으로 먹기 좋게 찢고 육수는 거름망으로 걸러 맑게 해준다. 고사리, 배추 등 채소를 넣어 다시 끓이고, 소금으로 간을 한 다음 들깨가루를 넣으면 영양과 맛을 모두 살린 염소탕이 완성된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염소 고기 소비 확대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염소 고기 분할 정형 기준을 설정하고, 소매 상품화 기술을 개발하는 등 관련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푸드테크과 강근호 과장은 "염소 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건강에 유익한 영양성분이 풍부해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국민연금, 기금 운용 전문가 22명 21일까지 공개모집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전문가 22명을 채용한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원) 기금운용본부는 2025년 제2차 자산운용전문가 공개모집을 7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다. 모집은 수탁자책임, 주식, 채권,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자금관리 등 기금운용 각 분야에 걸쳐 진행되며, 직급별로 책임운용역(2명), 전임운용역(20명) 등 총 22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서류 전형, 경력 검증, 면접 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등을 거쳐 선발된 인력은 오는 11월 임용될 예정이다. 서류 지원은 모집 공고일로부터 15일 동안 국민연금공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하면 되며, 채용 전체 과정은 지원자가 이름·학력·연령·성별·가족사항 등을 밝히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집 분야별로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채용직무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 분야별·직급별 자격요건 등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누리집 '채용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농협 전주시지부,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인구문제 인식개선 위해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

NH농협전주시지부(지부장 하양진)가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김종범 센터장의 지목으로 진

행된 가운데, 하양진 지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슬로건 피켓을 든 인증사진을 촬영하며 인구감소와 저출생 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농협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단체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하양진 지부장은 "저출생 극복과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 방안을 발굴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표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NH농협 전주시지부는 농촌일손돕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 및 교차기부, 헌혈 캠페인, 전주한글재민 기부, 삼계탕 나눔 활동 등 농업인 실익증진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오상근 기자

김호은 전북환경청장, 녹조 대비 산성정수장 현장 점검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지난 6일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산성정수장을 방문하여 여름철 녹조 발생에 대비한 정수장 운영관리 실태와 비상 대응 체계를 직접 살폈다. 산성정수장은 수자원공사 정읍권지사에서 운영하는 정수시설로 정읍시와 김제시 2개 지역에 하루 평균 46천톤 이상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녹조 발생을 대비하여 수



돗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수처리공정의 관리 상태를 점검 확인했다. 김호은 청장은 이날 현장에서 "전국적인 강우로 녹조는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최근 폭염으로 인해 녹조 발생에 유리한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취수단계에서 녹조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정수장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농진청, 어린이 농업·농촌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 열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우정준 박사 서거 66주기(8월 10일)를 앞둔 8월 7일 본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1층 소회의실에서 제16회 우정준 박사상을 아예요? 어린이 농업·농촌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이 공모전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초대 원장인 우정준 박사의 업적을 기리고, 어린이들에게 농업 과학의 중요성과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알려고자 해마다 추진하고 있다. 올해 공모는 '내가 키운 특별한 식물이야기'를 주제로 3월 31일~5월30일까지 진행했으며, 97개 학교에서 146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내외부 전문가와 국민평가단 심사 포럼 검사를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3점, 장려상 10점, 최후 15점을 선정했다. 대상은 황하주(하노이한국국제학교) 어린이의 '코로나 때 만난 새 친구가 뽕뽕했다. 황하주 어린이는 코로나 시기, 새로운 식물 친구로 강낭콩을 들여 이

를 심고 가꾸는 과정을 일기처럼 따뜻하면서도 섬세하게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식물을 키우며 느낀 경험을 교과를 그리워하는 마음과 연결해 쓴 박지원(왕미초) 어린이의 '흙속에서 자라난 작은 고향'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초보 농부의 흙바탕' (대구동평초, 김승재), '추억과 이야기가 가득한 텃밭' (고현초 김현민), '고파워! 방울토마토야!' (온양권곡초, 하재민)가 선정됐다. 시상식에는 입상자 4명과 가족이 참석해 상장과 부상, 수상작 모음집을 받았다. 시상식 후에는 홍보관에서 우정준 박사의 연구 관련 전시물을 둘러보고, 반려식물 체험 활동에 참여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원장은 "글 한 편 한 줄마다 담긴 맑고 순수한 마음이 우리 농업의 미래임이 깨닫는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